



NEW YORK TIMES

THE INTERNET IS DYING. REPEALING NET  
NEUTRALITY HASTENS THAT DEATH.

---

여러분은 이 사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 THE INTERNET IS DYING. REPEALING NET NEUTRALITY HASTENS THAT DEATH.

---

The internet is dying.

Sure, technically, the internet still works. Pull up Facebook on your phone and you will still see your second cousin's baby pictures. But that isn't really the internet. It's not the open, anyone-can-build-it network of the 1990s and early 2000s, the product of technologies created over decades through government funding and academic research, the network that helped undo Microsoft's stranglehold on the tech business and gave us upstarts like Amazon, Google, Facebook and Netflix.

인터넷은 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이 작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 앱을 키면 여러분의 사촌 아기 사진들을 아직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인터넷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이 가는 방향은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오픈 되고 누구나 쉽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진정한 인터넷 세대였던 그때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당시의 스타트업들을 활성화 시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으로부터 여러 기업들이 창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 인터넷입니다.

Nope, that freewheeling internet has been dying a slow death — and a vote next month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undo net neutrality would be the final pillow in its face.

하지만 지금의 자유로운 인터넷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다음 달에 있는 (미)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인터넷 망 중립성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Net neutrality is intended to prevent companies that provide internet service from offer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certain content over their lines. The rules prevent, for instance, AT&T from charging a fee to companies that want to stream high-definition videos to people.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우대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AT&T는 고화질 비디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Because net neutrality shelters start-ups — which can't easily pay for fast-line access — from internet giants that can pay, the rules are just about the last bulwark against the complete corporate takeover of much of online life. When the rules go, the internet will still work, but it will look like and feel like something else altogether — a network in which business development deals, rather than innovation, determine what you experience, a network that feels much more like cable TV than the technological Wild West that gave you Napster and Netflix.

망 중립성은 스타트업들을 보호하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에 비해 신생 기업들은 빠른 인터넷 라인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망 중립성이 없어지는 순간,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혁신 대신 인터넷은 케이블 TV 처럼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f this sounds alarmist, consider that the state of digital competition is already pretty sorry. As I've argued regularly, much of the tech industry is at risk of getting swallowed by giants. Today's internet is lousy with gate keepers, tollbooths and monopolists.

만약에 이것이 호들갑처럼 보인다면, 현존하는 디지털 경쟁은 이미 매우 독점화 돼있습니다. 테크 산업은 지금 거대한 기업들에게 집어 삼켜질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망 중립성 폐지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터넷 독점자들만 이롭게 하는 방안입니다.

The five most valuable American companies —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and Microsoft — control much of the online infrastructure, from app stores to operating systems to cloud storage to nearly all of the online ad business. A handful of broadband companies — AT&T, Charter, Comcast and Verizon, many of which are also aiming to become content companies, because why not — provide virtually all the internet connections to American homes and smartphones.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기업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상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미 독점하고 있으며, 앱 스토어부터 운영체제, 클라우드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에 브로드밴드 기업들은 (AT&T, Charter, 콤캐스트, 버라이즌 등)은 넷 중립성 폐지로 미국 집 및 스마트폰 연결되는 인터넷 독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Together these giants have carved the internet into a historically profitable system of fiefs. They have turned a network whose very promise was endless innovation into one stuck in mud, where every start-up is at the tender mercy of some of the largest corporations on the planet.

독점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을 혁신에 기계를 진흙탕에 갇혀버렸고, 넷 중립성 폐지 이후에 모든 미국에 스타트업들은 현존하는 가장 큰 기업들에 휘둘리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